

그리스도인 31.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진다.

Christian 21. Christians are added to the church in obedience to baptism by profession of faith.

1. 침례와 세례는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어떤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나 상관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일구이언하시지 않는다(딤후 3:8). 둘 중에 하나가 진리라면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성경기록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침례에 해당하는 동사 **Baptizo**는 ‘물에 잠기다’ ‘연합하다’의 의미가 있고 명사 **Baptisma**는 ‘물에 잠김’ ‘연합’의 의미가 있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을 보여주는 것인데, 머리에 물을 찌거나 붓거나 물을 뿌리는 세례의식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오직 **물에 들어가고 잠기고 나오므로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하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다.**

2. 침례에 순종하여 지역 교회에 더해진다.

침례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침례에 순종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에 순종해야 한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삼천 혼들이 더하여지더라(행 2:41)

여기서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말이다. **그들에게 더해졌다**는 말은 **이미 있는 교회 안으로 그들이 더해졌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교회의 지체로 더해졌다**는 말이다. **그들은 교회에 더해지기 위해 믿었고 침례에 순종했다.** 이 구절을 통해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며, 그 침례에 순종함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시인하고 교회에 받아들여졌음을 보게 된다.

3. 침례는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 **사마리아에 사는 남자와 여자들은** 빌립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믿어 침례에 순종했다(행 8:12).

•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고(행 8:35) 믿은 뒤, 침례에 순종했다(행 8:37-38).

• **핍박자였던 사울** 역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다마스쿠스 도시로 들어가 침례에 순종했다(행 9:18). 그렇게 한 뒤, 본격적으로 그 도시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었다(행 9:19). 이렇게 보면 바울의 첫 번째 지역교회생활은 다마스쿠스에서 시작된 것이다.

•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역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고 믿은 뒤, 그 가족과 더불어 침례에 순종했다(행 10:48).

•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역시,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 뒤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했다(행 16:15).

•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에 순종했다(행 16:33).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에 순종하므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했고 그렇게 해서 지역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거나 지역 교회에 더해졌다.

4. 침례는 한 번 받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 해도 제대로 믿은 뒤에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때 사람들은 재침례를 받았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믿고 받은 침례가 단 한 번의 침례로써 유효하다. 그 이전의 경우는 그저 물에 들어간 것, 물을 뿌린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었던 침례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 다시 침례에 순종해야 하는가?

• 믿지 않는 가운데 단지 교회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로 침례나 세례를 받은 경우….

• 믿음을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의 시기에 유아세례나 영세를 받은 경우….

•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침례를 받은 경우… 침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

• 죄를 씻는 조건으로 침례를 받은 경우… 죄를 씻는 것은 침례로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씻는 것이 가능하다.

• 성경기록에서 보인 방식이 아닌 약식으로 행해진 경우, 예를 들어 침례가 아닌 세례의 형

태로 물을 머리에 찍거나 뿌리거나 붓거나 한 경우...이런 경우는 복음의 그림자가 될 수 없다. 성경기록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만일 남자가 아닌 여자가 주는 침례를 받은 경우... 성경기록에서 여자가 침례를 주었던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침례를 준 것은 베드로와 함께 간 형제들이었다(행 10:48).

- 이단적인 모임에서 침례를 받은 경우... 이단의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해주신 일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침례 받은 경우... 잘 모르고 그저 침례에 받았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준수한 것뿐이다. 침례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를 받았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들은 다시 침례를 받았다(행 19:1-5). 그렇게 맨 마지막에 받은 침례, 성경적인 침례만이 한 번의 침례로서 유효하다. 이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는 사람을 재침례주의자(Anabaptist)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경대로 시행된 것은 단 한 번일 뿐이다. 유아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면 재침례주의자라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침례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뒤에 다시 받게 된 침례가 한 번의 침례로서 유효한 것이다.

5. 침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마 28:19)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행 8:16, 19:5), 혹은 주의 이름으로(행 10:48) 침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침례를 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속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해서 하나의 지역교회에 지체로 더해진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